

최첨단 캠퍼스에 해외 학위까지… 최대 규모 학습 네트워크

2026 사이버대 가이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사이버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입생과 졸업생을 배출하며, 최대 규모의 학습·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사이버대학 최다 신입생을 기록했으며(대학알리미 기준), 2026학년도 입학정원은 3591명으로 교육부 승인에 따라 사이버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장학금 지원 규모도 두드러진다. 서울사이버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장학금 지급 총액 1위를 기록하며, 재학생의 학업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전국 캠퍼스 구축…글로벌 복수학위로 교육 외연 확장

서울사이버대는 2000년 국내 최초로 사이버대학 인가를 받은 이후, 사이버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최첨단 대학 캠퍼스를 조성했다. 서울에 위치한 독립 인텔리전트 캠퍼스(약 1만6000㎡)를 비롯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이버대 최다 신입·졸업생 배출 7개 캠퍼스 운영, 온·오프라인 연계 복수학위·공동연구 등 글로벌 교류

부산·대구·인덕원·춘천·광주·인천·분당 등 전국 7개 지역에 캠퍼스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학교 샌버나디노(CSUSB) 등 해외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공동연구와 콘텐츠 교류, 교과목 공동 개발, 초빙교수 특별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CSUSB와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국내 학위와 해외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해 '온라인 복수학위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학과 신설·개편…대학원 과정 확대
서울사이버대는 2026학년도 학과(전공) 신설과 개편을 통해 사회 수요와 교

육 트렌드에 대응한다. 기존 문화예술대학과 음악대학을 예술대학으로 통합했으며, 반려동물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를 신설했다. 드론·로봇공학과, 문예창작학과, AI커머스와, 국방AI학과 등은 확대 개편했다.

일반대학원도 운영 중이다. 기존 사회복지학과, 상담·임상심리학과에 더해 뷰티산업학과, 음악학과, AI융합기술학과를 신설해 석사·박사 과정을 포함한 총 5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 2026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
서울사이버대는 오는 15일까지 총 11개 단과대학, 49개 학과(전공)로 사이버대 최다 모집학과(전공)에서 2026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사회복지대학(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심리·상담대학(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심리학과) ▲사회과학대학(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안전관리학과, 통일안보북한학과) ▲융합경영대학(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

과, 세무회계학과, AI서비스마케팅학과) ▲공과대학(컴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인공지능학과, 드론·로봇공학과(개편), 응용수학·통계학과(신설)) ▲디자인대학(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문예창작학과(개편), 뷰티디자인학과, 스포츠지도학과(신설)) ▲예술대학(통합)(피아노과, 성악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회화과) ▲미래융합인재대학(AI커머스와(개편), 모델링기학과, 실용영어학과, 국방AI학과(개편)) ▲AI융합대학(AI크리에이티브학과,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AI스마트팜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신설)) ▲웰니스건강대학(통합건강관리학과, 요가명상학과) ▲마이크로디그리대학(자유전공)이다.

신입학은 고졸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격만 충족하면 된다. 서울사이버대 입학홈페이지(apply.iscu.ac.kr)에 접속해 PC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박형준 부산시장 美 순방… 북극권 협력 확대

부산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서 북극항로·항공물류 등 성장동력 점검

박형준 부산시장이 북극항로와 미래 신산업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미국 출장 길에 올랐다. 북극항로 기착 예정 도시 방문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 참관을 통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미국 알래스카주와 네바다주를 방문한다. 이번 출장은 북극항로, 항공물류, 인공지능(AI) 등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국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

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시장은 먼저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를 찾는다. 앵커리지는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대표적인 항공화물 허브 도시다.

부산시는 앵커리지 방문을 통해 항공물류 네트워크 확대와 북극항로 연계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곳에서 가덕도신공항이 향후 글로벌 항공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박 시장은 알래스카 북서부에 위치한 نوم(Nome)시를 방문한다. نوم은 인구 3000명 규모의 소도시지만, 부산에서

출발하는 북극항로의 중간 기착지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쇄빙선 아라온호도 북극해 진입을 위해 이곳을 기항지로 활용한 바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북극 개발의 전초기지로 نوم 심수항 개발을 추진 중인 만큼, 부산시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물류 협력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해 CES 2026에 참석한다. CES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직결된 첨단 기술 트렌드를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족방주민 안식처 ‘동행목욕탕’ 9만명 이용

서울시, 동행목욕탕 3년간 운영 더위·추위 피하는 사랑방 역할 토크

씻을 곳이 부족한 족방 주민들이 편안하게 씻고, 여름과 겨울에는 더위와 추위도 피할 수 있는 동행목욕탕이 운영 시작 3년여 만에 9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이용률이 3년간 10% 이상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외로움 해소와 소통을 돕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3년간 운영된 동행목욕탕의 이용률(이용권 배부수/이용자 수)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68.3%, 2025년 69.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년간 누적 이용 인원은 9만835명이다.

‘동행목욕탕’은 2023년 3월 서울시가 한미약품㈜의 후원을 받아 시작한 약자동행 대표사업이다. 족방주민들에게는 월 2회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고 목욕탕은 매달 이용 횟수만큼 정산을 받는다.

한미약품㈜은 연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을 후원한다.

초기 4곳에서 시작해 현재는 8곳으로 늘었고, 하절기(7·8월)와 동절기(1·2월)에는 월 4회로 이용권 지급 횟수를 늘려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행 3년 동안 주민 만족도는 물론 향후 이용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는 2023년 96.1%, 2025년 97.3%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광주·전남 대통합론… 40년 경계 허무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 앞뒀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광주·전남 대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40년 경계가 허물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왔던 시·도간 통합 논의 과정을 살펴봤다.

2일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한뼘리였던 광주와 전남은 1986년 11월1일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광주 동구에 위치한 전남도청의 이전이 본격 검토됐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만큼 도청도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005년 말 도청이 무안 남악에 동지를 틀며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통합론은 2020년부터 다시 시·도를 달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전략적 협력 등이 재논의의 계기가 됐다.

2021년 김영록 도지사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행정통합에 뜻을 같이하고 용역 단계까지의 절차를 밟았지만, 통합을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광주 일부 지역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난 데다 당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계획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동력을 잃은 통합론은 결국 중단됐다.

통합론은 새 정부들어 다시한번 급부상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체제가 국정의 큰 틀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도는 우선 느슨한 통합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출범하기로 했다.

출범을 앞둔 시점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약속 등 강력한 유인책이 촉매제로 작용, 시·도간 통합론은 재점화됐다.

시·도 행정통합론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지 지역민 사이 새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메트로 한줄뉴스



▲베네수엘라 대법원 “로드리게스 부통령에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명령”

/사진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美 마두로 체포 논의…국제법 논란 해명 주목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베네수엘라 사태 악화 막는 ‘외교 노력’ 강조

▲에드 데이비 영국 자유민주당 대표, “美 베네수엘라 공격은 푸틴·시진핑의 공격 허용하게 될 것”

▲주일 중국대사관 “일본 치안 좋지 않아”…여행 자제 재차 권고

▲인도, 마오주의 공산 반군과 교전…낙살라이트 조직원 14명 사살

